

# 뉴 밀레니엄 시대의 양돈정책 방향

## 1. 양돈시책 추진실적 평가

### 가. 추진성과

□전업규모 사육농가 수가 2천 호로 증가하였고, 전업규모 농가의 사육두수 비율 또한 56%로 증가하여 사육기반의 규모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음

○전업규모(1,000두 이상) 사육농가 호수 : ('90) 0.4천호 → ('96) 1.3천호 → ('99.9) 2.1천호

○전업규모 사육농가 두수 : ('90) 1,053천두 → ('96) 2,780천두 → ('99.9) 4,353천두

○전업규모사육두수비율 : ('90) 23.3% → ('96) 42.7% → ('99.9) 55.7%

□단지조성 86개소, 계열화 14개소 등, 양돈사육기반을 조직화하여 품질 및 가격경쟁체제 구축('92~'97)

○단지 : 86개소, 425천두

(6.0%점유)

○계열 : 14개소, 637천두

(9.0% 점유)

○품질개선 : 40개소, 1,923천두(27.1% 점유)

□돼지의 주요질병 특히 돼지콜레라에 대한 근절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

○양축농가와 생산자단체 중심의 지역별 공동방역단 설치로 질병 조기 발견에 의한 긴급 방역조치 및 예방접종

○돼지콜레라 박멸 비상대책본부 설립

○주요 질병 조기발견에 의한 긴급방역조치 및 예방접종

□이와 같은 정책수행의 결과로 농축산물 중 돼지고기가 수출 선도 품목으로 부상

- 농립산물 : ('93) 1,045백만 \$ → ('98) 1,635 (156%)

- 돼지고기 : ('93) 65백만 \$

김남철 과장  
농림부 축산경영과

→ ('98) 313(482%)

## 나. 문제점

□축사시설·장비 등 H/W 중심의 지원으로 사육기반의 규모화·전문화는 상당부분 달성하였으나 종돈개량, 사양기술 향상, 농가경영 개선 등 S/W분야의 지원이 미흡함

○수요자의 신청에 의한 자금지원으로 다수 농가에 분산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업농 육성에는 한계가 있었음

○사업지원 후 체계적인 운영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종돈 및 사료통일, 공동경영, 기록관리 전산화 등이 미흡

○사양기술, 시설·장비, 분뇨처리체계, 경영기술 등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한 표준모델 제시 미흡

□돼지고기 수출물량은 대폭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품질수준이 향상되지 않아 저가 수출되고 있음

○수출규격돈 합격률 저조, 냉동육 위주의 수출 및 물돼지고기 발생과다로 품질이 낮은 돼지고기 생산

○위생도축 가공시설 부족 및 냉장육 제조·유통기술이 낙후되어 지리적으로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냉장육 수출비율이 27%('98)로 낮은 수준임

○자체 가공시설이 없는 영

세수출업체의 위탁가공 수출로 수출육의 품질저하 및 냉장육 수출 곤란

○위생, 안전돈육 생산을 위한 도축장, 가공장 위생점검 체계 미흡

□축산분뇨처리에 대한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함

○축산분뇨처리 시설 지원 후 사후관리 및 축분의 재활용 체계구축 미흡

○사육시설형태에 따른 적정 분뇨처리 공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

□주요 돼지질병이 근절되지 않아 생산성 저하 및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제기 되고 있음

○소모성질병 미근절에 따른 항생제 오남용으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불신 야기

○축사환경시설 미비, 사육규모 다두화, 집단화로 질병확산 및 피해 대형화

○방역위생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농가의 실천이 부진함

-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의 소홀로 콜레라발생이 근절되고 있지 않음

- 자돈설사병 미근절로 매년 동절기 자돈설사병이 발생하여 6~8월 출하돈 부족현상 반복

○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따른

해외 악성전염병 국내 유입기회 증대

## 2. 뉴 밀레니엄 시대의 양돈여건 변화와 과제

### 가. 양돈여건변화

□양돈농가의 조직화와 호당 사육두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중심의 돼지고기 유통으로 전환

○부업규모 양돈농가의 경쟁력 상실에 의한 탈농현상 가속으로 사육호수 감소 및 호당 사육규모 증가 추세 지속

○개별농가가 자돈생산·사육·출하를 전담하는 일관경영 방식에서 전문경영체 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전환

- 개별농가는 사육만을 전담하고 전문경영체는 종돈, 자돈생산, 사료공급 및 돼지고기 유통을 담당함

○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한 생산자와 판매점 연계와 돼지고기 브랜드화 정착

□돈육의 품질, 위생수준 및 안전성 향상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대

○사육에서 도축, 가공, 운송, 판매 등 돼지고기 유통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 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 도입·정착

○돼지고기 내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범위 및 검사기준 강화

□환경에 대한 국민인식 고조에 따른 축산분뇨처리 규제 강화로 양돈경영 여건 악화

○축산분뇨처리 비용증가에 의한 돼지 생산비 증가로 농가 채산성 악화

○축산분뇨처리 규제 강화로 신규농가 진입곤란 및 사육두수 증가 제한 요인으로 작용

### 나. 양돈산업의 당면과제

□규모화 전문화로 가격 및 질적 경쟁력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

○돼지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수입관세의 점진적 인하로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쟁제고를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이 필수적임

- 수입관세 : ('97) 33.4% → (2004) 25%

○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브랜드육, 부분육 유통체계 구축 및 유통단계 축소로 돼지고기의 품질향상과 유통비용 절감

○수입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되는 것의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제 정착

□돼지고기 위생·안전성 강화

○국내 HACCP제도 도입 실시

○축산물 내 유해물질 규제 기준 강화

□돼지고기 수출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

○냉장육 위주의 돼지고기 수출체계 구축

○수출규격돈 출하 장려시책의 지속적 추진

□돼지콜레라 박멸 지속추진

○돼지콜레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박멸을 위해 후속대책 추진

○돼지콜레라 취약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관리

## 3. 뉴 밀레니엄 시대의 양돈정책방향

### 가. 추진목표

□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

□안전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 생산

□축산분뇨의 자원화

□질병방역 및 위생수준 향상

### 나. 추진방향

□전문경영체 중심의 조직화와 기술수준 향상

○양돈계열화 사업추진 및 전업농 3000호 육성

○양축기술 향상으로 생산비 절감

- 생산기술 향상 목표

○분만율 : 85% → 95%  
 ○모돈번식 회전율 : 2.1회/년 → 2.3회/년  
 ○연간 이유두수 : 18.9두 → 25.0두  
 ○일당증체량 : 0.60kg → 0.67kg  
 ○사료요구율 : 3.20 → 2.73  
 ○비육돈출하체중 : 100kg → 110kg  
 ○출하일령 : 170일 → 180일

○양돈농가의 경영, 기술기법 전산화 체계구축

○교육, 컨설팅 및 선도농가 벤치마킹에 의한 경영기술 향상

□품질이 우수하고 유해물질이 없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

○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회수제도 도입

○고품질, 안전성이 확보된 냉장 돼지고기 수출로 고부가가치 실현

○유해잔류물질 검사확대 및 생산단계별 HACCP제도 도입

□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강화

○돼지분뇨를 액비나 퇴비로 최대한 자원화

○축분퇴비 유통센터 설치 확대

□돼지콜레라 박멸

○2001년까지 돼지콜레라 청정지역 선언

### 다. 추진내용

□2001년까지 전업규모 사육농 3천호 선정육성

○전체 사육두수의 70% 점유목표

○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기반으로 육성

□계열화 및 양돈단지 운영의 내실화로 경영안정화

○양돈농가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연계한 계열화체계구축으로 농가경영여건 개선

- 계열주체를 중심한 생산, 가공, 유통 일관경영으로 농가는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에 전념토록 유도

○기존의 투자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규 사육시설 지원을 지양하고 계열주체에 운영자금 지원 추진

- 계열화사업 추진시 기존 양돈단지 또는 농가를 계열농가로 활용한 업체 우선 지원

- 기 지원한 계열주체에는 계열화 사육비, 농가 및 단지는 종합자금제에 의한 자금지원

□축산업 전반에 대한 투용자를 생산기반조성 위주에서 경영안정, 유통효율화 위주로 전환

○생산기반시설은 기존의 기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노후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

- 생산기반지원 : 1단계 20,667억원 → 2단계('99~2004) 4,607억원(Δ77.7%)

○유통·가공 및 안전성 강화 분야에 대한 투용자 확대

- 축산물 유통·가공 및 소비지원 강화 : (1단계)6,983억원 → (2단계) 15,428억원(2.2배 증액)

- 현대화된 가공시설 조기건설 : 1,001억원

- 원료구입자금 및 출하촉진자금 지원에 의한 부분육 유통물량 확대(1,680억원)

○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를 조기에 완공하여 냉장브랜

드육, 부분육 유통의 중심축으로 육성

- 2000년까지 5개소를 추가로 완공하여 총 10개소의 종합처리장 운영

- 완공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계열농가 육성 및 원료구매자금 지원

○공판장, 도축장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여 냉장 부분육 유통 기지로 활용

- 부분육 가공시설자금 지원 : ('99) 7개소, 343억원 → (2004) 57개소, 279.3억원

- 규모가 영세하고 시설이 불량한 도축장은 통폐합 유도

- 대도시 도축기능의 축소 및 산지가공 부분육 경매시설 지원

□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

○생산에서 소비까지의 HACCP체계 구축으로 돼지고기의 식품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

- 2001. 7월~2003년까지 도축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

- 2002년까지 50개 도축장에 250억 지원

○소비자 회수제를 축산물에 도입하여 소비자보호 및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

○축산물 내 유해잔류물질 및 유해미생물 검사 대상 확대

- 유해잔류물질 : ('97)17종 → ('99)44종 → (2004)114종

- 미생물 : ('97) 5종 → ('99) 9종 → (2001) 11종

□돼지콜레라 근절대책 추진 강화

○'99년까지 예방접종 100% 실시하고 2001년 돼지콜레라 청정화 지역 선언

- 2000년부터 100두 이상 1000두 미만농가에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

○취약지대인 100두 미만 소규모 양돈농가 및 멧돼지 사육농가에 대한 지속적 집중관리

○지역담당관제 및 돼지콜레라 비상대책위를 통한 현장점검체제 강화로 양돈인의 동참분위기 조성 및 예방접종률 향상

○제 2단계 돼지콜레라 특별대책 추진

- 시장·군수 책임하에 시군단위의 방역행정 및 민간단체 기능 일원화

- 추진이 우수한 시군은 농정시책에 인센티브 부여

□가축방역,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투자 대폭확대

- 수출입 및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검역, 위생분야 투자 확대 : ('92~'98) 1,094억원 → ('99~2004) 3,900억원

□환경친화적 양돈산업육성

○축산분뇨 자원화 지원 강화 및 생산자단체 중심의 협의체 구성 운영으로 이용 촉진

- 축분퇴비 및 액비의 작물

별 계절별 시용량 기준 및 경지면적당 시용량을 설정하여 축분을 최대한 자원화

○축산퇴비화 액비화 및 정화시설 지원을 지속하여 축분 자원화 기반 확충

- 지원액 : ('99) 4천개소, 870억원 → (2004)4천개소, 826억원

○농협을 통한 유기질비료(축분퇴비) 가격보전 확대

- ('99)40만톤, 140억원 → (2000) 50만톤, 175억원(20kg 포대당 750원 보조)

○축분퇴비 유통센터 설치로 판매촉진

- 도별로 농축협조합 1개소씩을 선정 시범운영 후 확대 ('99년 24개소)

□돼지고기 수출확대 적극 추진

○2004년까지 돼지고기 수출

액을 650백만불까지 확대하여 농축산물 수출의 전인차 역할 수행

- 돼지고기 수출목표 : ('98) 313 백만\$ → (2004) 650백만\$

○2004년까지 돼지고기 수출 목표달성을 위해 냉장육 위주의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

○수매 유통자금 지원시 냉장육 수출업체에 인센티브 부여 및 규격돈 구매물량에 따라 지원

○수출업체 난립방지를 위하여 자금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우수업체 집중 지원

○고품질규격돈 생산기반구

축 및 WTO규정상 허용 보조 확대

- 원료돈에 대한 표준규격을 설정하여 규격돈 출하실적에 따라 축산경영자금 지원

- 규격돈 출하지원 확대 : ('98) 2만원/두 → ('99)3만원/두 → (2002) 5만원/두

○수출 축산물용 강화 포장재 보조지원 : ('99)15억원 → (2004) 20억원

○일본 외의 나라에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하여 수출시장 다변화 **양돈**

**바로 잡습니다**

지난 '99년 11월호 "긴급진단/ 육돈의 교배방법에 따른 농가수의 차이점 비교" 원고중 몇가지 한자표기가 잘못되어 바로잡습니다.

- 근교퇴화(近郊退化) : 郊 → 交
- 이계 교배(異繫交配) : 繫 → 系
- 포육능력(哺肉能力) : 肉 → 育
- 도체형질(導體刑質) : 導 → 屠

**토막뉴스**

**몸집 40% 큰 초고속성장 돼지 탄생**

보통돼지보다 몸집이 40% 크고 성장속도도 빠른 유전공학 돼지가 미국 연구팀에 의해 만들어 졌다. 미국 베일러 의과대학 분자-세포생물학 교수 로버트 슈어츠 박사는 새끼돼지에 성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화학물질을 투입, 이와 같은 거대 초고속성장 돼지를 만들어냈다고 밝히고, 이러한 생물공학 기술은 성장장애 아이들을 치료하고 에이즈와 암환자의 근교퇴화를 차단하는데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.

슈워츠 박사는 "자연 생물공학" 12월호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성장호르몬 생산을 촉진하는 합성 화학물질을 생분해되는 DNA 조각에 주입한 다음 이를 태어난지 2주 된 돼지새끼의 다리에 투입한 결과 이 화학물질이 뇌하수체를 자극, 정상보다 많은 양의 성장호르몬이 분비되었다고 말했다.

2개월후 이 돼지는 몸무게가 42kg으로 불어났는데 이는 이러한 처치를 받지 않은 보통돼지의 30kg에 비해 40%가 많은 것이다.

또 이 생물공학 돼지는 사료를 25% 덜 먹어 사료비가 크게 절약되었으며 도살시기도 보통돼지들에 비해 2주가 빨랐다. 이 특수사육 돼지들은 다 자라기까지 사료값이 보통돼지들에 비해 절반 밖에 들지 않았으며 덜 먹는만큼 배설물도 적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슈워츠 박사는 말했다.